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성료'

지방분권 여수선언 등 지방자치 역량높이는 계기 4일간 여수박람회장서 개최...전시부스 310여개 주민자치 확산시킨 정책·성과 및 우수사례 전시

전국 광역도시가 아닌 지방도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29일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박람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5년간 밀그림을 발표하고,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는 자치역량을 높인 박람회로 평가받았다.

이번 박람회에는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리는 표어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치를 확산하는 주요 정책 성과들과 우수 사례들이 주로 전시됐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강화하려는 새 정부의 비전과 의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공유하는

장이 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개막행사, 중앙과 각 시·도 우수정책 홍보관, 향토자원·마을기업 전시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전시관, 지방자치 다양한 분야의 성공사례 발표 및 시상식, 지방자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펼쳐졌다. 또 전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 최초로 구성 운영된 시군구 정책홍보관에는 6개 시군구가 참여해 행정 혁신·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수 정책이 전시됐다.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기구가 참여해 우수 정책 및 활동사례를 전시하는 국제관도 새롭게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재정분권의 현황과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 주관 주민자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치분권의 성공을 기원하는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활성화 세미나, 토론회 등이 열렸다. 지방자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회로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됐다.

강영구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장은 "도 단위로는 최초로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는 자치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남녀노소, 학생 등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진행돼 한자

리에서 지방자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박람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에 맞춰 개최되는 행사다.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소중한 자리다.

여수=송기홍 기자

총장축제, 침체된 총장로 4·5기에 활기

광주 동구는 기존 7080에 8090문화콘텐츠를 더하며 감동을 선사한 '제14회 추억의 총장축제'가 경기침체를 겪던 총장로 4·5기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의 총장축제는 총장로 1~3가, 금남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 예술의거리를 중심으로 치러지면서 상대적으로 총장로 4~5기는 축제특수에서 소외된 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총장축제는 간판프로그램인 '추억의 테마관'이 구조흥은행 건물 1, 2층에 실내 테마관 형식으로 꾸며져 관람편의를 높이고 남광주아시장과 지역 상인들이 참여한 29대의 음식매대가 관람객들의 방문을 이끌었다.

서구, 조직내 비효율·비합리 문화 바꾼다

광주 서구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혁명에 나섰다. 이를 위해 서구는 지난달 일주일 간에 걸쳐 7급 이하 공무원들로 부터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무기명으로 접수받았다.

접수 결과 149명의 직원들이 업무방식 개선, 후생복지, 적폐문화 개선과 관련한 280여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눈치 보지 않고 대체휴무, 보강휴가 실시 ▲각종 교육, 행사, 회의 줄이기▲회의 및 행사 강제인원 배정 금지 ▲민원업무 직원 1시간 점심시간 보장 ▲주말 결재 및 출근 지양 등의 의견들이 그 것. 또 ▲구청장과의 무기명 소통 창구 마련 ▲부서별 사무분장 진단 ▲성과지표 축소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인격도독성 발언 근절 등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남구, 시내버스 승강장에 무장애 정류장 설치

광주 남구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에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무장애(Barrier Free) 정류장'이 설치된다.

남구에 따르면 무장애 정류장이 설치되는 곳은 일림동 휴먼시아 1차 앞 시내버스 승강장 2곳과 송원대학교 앞 승강장 2곳 등 총 4곳이다.

이곳 승강장에서는 시강장애인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움직이는 공간에 선형 및 점형 블록(좌우 10m 정도) 형태로 점자 블록이 설치되며, 버스 뒷문방향 앞쪽 바닥에 휠체어 마크를 시각형 모양으로 표시한 휠체어 대기소로 그려진다. 또 버스 뒷문방향 뒤쪽 또는 측면 공간에 휠체어 장애인 대기석 표시가 부착되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에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보도 경계석의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북구,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16회 연속 수상

광주 북구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경진대회에서 16회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북구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16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지역 활성화 분야 주민자치 분야에서 각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380여개 참가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64개 사례가 주민자치 향연을 펼친 이번 박람회에서 북구는 ▲지역활성화 ▲주민자치 등 2개 분야 4개 사례가 참가했으며, 4개 사례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산구, 병원이동보호사 사회혁신 부문 우수상

광주 광산구의 '병원이동보호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사회혁신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7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됐다.

'병원이동보호사'는 광산구가 광주주요대, 병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 창출한 새로운 직업군이다. 전문 교육 이수자들이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돌본다.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둔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 여성 등이 일자리를 갖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교육을 수료한 병원이동보호사 36명이 지역 아동병원에서 활약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금액은 시간당 1만2000원.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의 90%~50%를 감액해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광산구는 뒷받침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전남 '챔피언' 한우 선발...73마리 출품

전남도 한우경진대회

전남 최고의 한우를 가리는 '제36회 전남도 한우경진대회'가 11월 3일 함평가축시장에서 열린다.

매년 개최하는 한우 경진대회는 혈통이 우수한 한우를 발굴하고 암소의 개량 성과를 측정해 우수 농가를 표창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농협전남지역본부와 함평군이 주관한다.

암송아지, 미경산우(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한우), 경산우 3종 등 총 5개 부문으로 나눠 운영된다.

올해는 20개 시군에서 자체 선발한 73마리가 출품될 예정이다.

대회에 출품된 한우에 대해서는 체중량, 체형, 가죽 외모, 월령 평가 등 엄격한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최고의 한우인 '챔피언' 등 모두 23마리를 선발해 총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김정환 기자

이밖에도 함평에서 사육하는 최소 전시, 한우 홍보관 운영, 한우고기 시식회, 난타공연, 사물놀이, 노래자랑 등 부대행사를 통해 한우농가와 축산인 모두의 화합의 자리로 치러질 전망이다.

배운환 전남도 축산과장은 "도는 한우 등록, 친자 확인, 유전능력검정, 선형심사 등 한우 개량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이번 대회에 출품하는 한우의 주요 가족 전염병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9월 말부터 3주간 대회에 참가하는 우수 한우에 대해 국가재난형 질병인 구제역을 포함한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내병 등 4종의 전염병 검사를 했다.

멸종위기 '해마' 인공증식 성공

다도해 소안도서 신종후보종 '소안해마'에 적용

완도군 소안도에서 5년전 세계 최초로 발견된 멸종위기종 '해마'의 신종 후보종, '소안해마(가칭)'가 인공증식에 성공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소안도에 사는 소안해마의 성체를 확보, 부화된 치어를 키우는 방식으로 최근 인공증식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부일체로 알려진 해마는 번식기가 되면 암컷과 수컷이 꼬리를 같은 상태에서 꼬리를 하며 암컷은 수컷의 배에 있는 보육낭(brood pouch) 속에 산란한다. 이후 수컷은 수정란을 돌보고 부화시킬뿐만 아니라 태어난 새끼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보육낭에서 키워 약 0.7cm 정도까지 성장한 약 30~70개체의 치어를 출산한다.

공단은 성숙한 소안해마 2쌍을 소안도 인근 바다에서 올해 5~6월에 포획해 사육용 수조에서 출산시기와 유사한 온도를 유지하며 교

미와 산란을 유도한 결과 수컷 1마리당 약 25~50마리(월 1회)의 해마 치어를 방출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인공 증식으로 태어난 어린 소안해마는 성체와 격리되어 성장 단계별로 먹이를 공급받았으며 약 50일이 지난 올해 8월 기준으로 생존율이 약 68%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치어 생존율이 약 30% 이상일 때 어류의 인공 증식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공단은 내년부터 매월 50마리의 소안해마를 인공 증식시켜 서식지인 소안도 거머리밭 군락지에 다시 놓아주는 복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로 연안에서 서식하는 해마는 남획과 환경오염으로 개체수가 감소해 멸종이 우려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Red List)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고흥·구례·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서울가정법원
2017년 548 상속판정승인
사 망 자 : 정 율 호(00615-155032)
최 후 주 소 : 서울동대문구계기로2길25-14

위 망 정율호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제원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 신고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7년 10월 30일

공고인: 정두환
주 소: 광주동구필만대로 16번길 15 (산수동)
한정승인수리일 : 2017년 10월 29일
공고기간 : 2017. 10. 30~2017. 12. 31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세무회계사무소

- 건설면허신청
- 양도상속증여
- 기 업 진 단
- 기장대리
- 법인설립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우
동센터 30동 217호(중앙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점·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Ом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